

소박한 삶이 있는 이야기

테이스티케익스 유래준 · 이호재 부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유래준 씨와 이호재 씨 부부는 평범하지만 넉넉한 마음을 갖춘 우리의 이웃이다. 남편이 퇴직한 이후 함께 제과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그들은 93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천사원에 빵을 보내고 있다. 욕심없이 살아가는 이들 부부의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 본다.



서 유래준(61) 씨와 이호재(57) 씨는 정신적으로 부유함을 갖춘 사람들도.

제과점의 경영주가 되기까지

유래준 씨와 이호재 씨가 제과점을 시작한 것은 92년도의 일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래준 씨는 대한재보험(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고 이호재 씨는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로 지냈다. 그러나 92년 남편이 23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게 된다.

“평소 제과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좋다는 느낌만으로 시작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제과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할 무렵, 부인 이호재 씨는 기술을 배우는 한편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에서 자리를 물색하며 제과점 개업 준비에 들어갔다. 여러 가지로 서툰 점이 많았지만 주위의 격려와 도움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해 나갔다. 특히 유래준 씨의 오래된 친구는 미국에서 그들 부부가 제과점을 개업한다는 이야기를 전

물질적으로 넉넉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비록 그 형태가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날 지라도 마음이 넉넉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그런 의미에

해 듣고 디자인을 공부한 딸과 의논해 로고와 상호를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92년 10월 이들 부부는 북가좌동에 테이스티 케익스라는 상



↑ 이호재 씨는 15년간 꽃꽃이를 배웠다. 발렌타인 데이와 화이트 데이를 맞아 그 솜씨를 기획상품 포장에 발휘하고 있다.

호로 제과점을 개업했다. 그러나 제과점 개업과 동시에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얻어 출근하게 되었고 부인 혼자서 제과점을 꾸려 나가야 했다. 한 가정의 주부로만 지내왔던 이호재 씨에게 혼자서 제과점을 경영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의 어려움을 이렇게 회상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은 일더군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점은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업계가 워낙 인력이동이 심한 편이라 정이 들만 하면 그만두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자신의 일에 익숙해져 갔다. 2년전 새로운 공장장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인력이동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남편의 가세 또한 그녀에겐 큰 힘이 되고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진열대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섬세함은 매장 곳곳에서 잘 드러난다. 15년간 꽃꽃이를 배워왔던 그녀는 특수질이 되면 손수 기획상품을 포장해 판매하기도 한다.



↑ 이곳을 찾은 고객은 대부분 유래준 씨 부부의 이웃사촌들. 매장을 찾은 손님들과 차 한잔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들 부부의 작은 즐거움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후 2시 무렵. 이 시간이 되면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제과점을 어김없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다름아닌 천사원의 선생님들. 대한재보험(주) 재직 당시 같은 직장 동료들을 통해 천사원과 인연을 맺게 된 유래준 씨 부부는 93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천사원에 빵을 보내주고 있다.

“그다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팔고 남은 즉석빵 처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천사원 생각이 나서 보내준 것 뿐인데...”

천사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자 부부는 상당히 쑥스럽다는 듯이 말끝을 흐린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즉석빵이 부족한 날이면 다른 제품들도 더 보내준다는 사실을 살짝 귀띔해 준다. 특히 작년 IMF 사태 이후 재료값이 상승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들 부부는 천사원에 빵을 보내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이 남을 도와주는 마음은 결코 물질적인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겨진 이야기들

이들 부부는 얼마전 화정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다. 그래서인지 테이스티케익스를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그들의 이웃이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곤 했다. 그들은 같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 자그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생각에 매장 한켠에 약간의 좌석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을 가다 들른 아주머니들과 이야기 저예기를 나누는 것이 그들에겐 작은 기쁨이다.

고객들과 이웃 사촌처럼 지낸다는 것은 제과점을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반응은 물론 서비스와 매장의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재료값이 급등하면서 한때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갑작스런 상황에 재료를 구하느라 동분서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이웃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 재료상을 소개해 줘 다시 어렵지 않게 재료를 구입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인원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한기죽처럼 지내는 사람들인데 조금 적게 벌더라도 적게 버는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 부부는 막내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과 제과점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유래준 씨와 이호재 씨. 소박하지만 넉넉한 마음을 지닌 이들 부부의 삶을 엿보며 행복이란 욕심없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글 / 김경옥〉